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에 나타난 재해*

윤혜영**

(e-mail : yun1971@cnu.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젊은 세대를 위한 메시지 |
| 2. 재해문학으로서의 의의와 가치 | 5. 나가기 |
| 3. 다키와 미쓰하의 연결이 의미하는 것 | |

키워드 : 新海誠(Makoto Shinkai), 君の名は。(Your Name.), 災害(disaster), 東日本大震災(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災害文学(disaster literacy), 若い世代(younger generations)

1. 들어가기

2016년 8월 26일에 개봉한 신카이 마코토(新海誠)의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君の名は。)〉은 개봉 전부터 SNS를 통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전작(前作)인 〈언어의 정원 (言の葉の庭)〉(2013)보다 100배를 넘는 흥행수입을 기록하면서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¹⁾ 그리고 이것은 만화, 콘서트, 전시회,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한 투어리즘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되기도 하였다. 이 중 개봉에 앞서 간행된 소설 『너의 이름은. (君の名は。)』(2016.6.18. 角川文庫)의 경우 2016년 문고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였다.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고 다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영화의 경우 3인칭

* 이 연구는 2017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충남대학교,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1) “국내 흥행 랭킹으로는 공개 후 29주 연속으로 톱10에 들어갔고, 흥행수입 250억 엔을 넘는 역사적인 대히트를 기록하였다. 제40회 일본아카데미상에서 애니메이션 작품 중 최초로 최우수각본상을 수상하였다.” <https://eiga.com/movie/83796/> 검색일: 2016.7.31.

시점으로 전개되지만 소설은 다치바나 다키(立花瀧, 이하 ‘다키’)와 미야미즈 미쓰하(宮水三葉, 이하 ‘미쓰하’)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카이 마코토는 인터뷰에서 영화의 경우 음악이나 영상으로 등장인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소설에서는 그들의 심정을 자세하게 묘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영화로는 몰랐던 더욱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소설”²⁾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 작품에 대한 서평이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 대부분은 영화의 인기비결 및 파급효과, 제작과정 등에 대한 기사 및 평론이 많은 편이고,³⁾ 작품의 주제에 접근하려는 연구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이다.⁴⁾ 이중 문학작품으로서의 인지도에 주목하여 소설과 라이트노벨⁵⁾을 중심으로 신카이 마코토의 ‘세카이계(セカイ系)’를 검토한 연구가 있다.⁶⁾

작품의 관전 포인트는 도쿄에 사는 고등학생인 다키와 산골 마을에 사는 미쓰하라는 여고생의 몸이 서로 바뀌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스토리가 전개되는 판타지적인 부분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두 남녀의 아련한 사랑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축제로 들떠 있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운석이 떨어져 마을이 물

2) <https://www.bookbang.jp/article/519129> 검색일: 2018.6.12.

3) 岡崎優子(2017) 「君の名は。 : ジャパンドリームを生み出した軌跡(総決算保存版 2016年 映画業界を斬る)」 『キネマ旬報』 1741, キネマ旬報社, pp.101-104, 境治(2016) 「『君の名は。』 ヒットの裏側 映画界を変えるSNSの拡散力(特集 テレビ・新聞から個人も企業も離れる そのメディアにおカネを払いますか?)」 『週刊東洋経済』 6694, 東洋経済, p.64, 高口康太(2016) 「『君の名は。』をとことん語り合おう: 観客動員1200万人! 観た人だけが分かる「もう一度観たくなる」ワケ」 『サンデー毎日』 95(48), 毎日新聞出版, pp.171-173, 樋口尚文(2017) 「〈復興ファンタジー〉がここまで化した理由:映画『シン・ゴジラ』『君の名は。』 ヒットの分析(特集 コンテンツの潮流をつかむ)」 『月刊民放』 47(1), 日本民間放送連盟, pp.4-8, 김종은(2018)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君の名は)’ 당신에게 도쿄(東京)는...」 『국토』, 국토연구원, pp.86-92 등

4) 杉田俊介(2016) 「すばるクリティーク 『君の名は。』 論 : セカイとワカイの間に」 『すばる』 38(12), 集英社, pp.202-210, 박남기(2017)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의 ‘장소’가 가진 성격과 기억의 전유를 위한 상상력」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pp. 146-164, 안윤경·김현석(2018) 「해체로 읽는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 君の名は.〉 -이름 없이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물들에 대해」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pp.75-99, 전윤경(2017) 「질 들뢰즈의 ‘되기’의 사유로 본 〈너의 이름은.〉 - ‘몸 바꾸기’의 의미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11,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pp.7-44, 후쿠시마 미노리(2017) 「〈너의 이름은〉에서 일본 청년세대의 사회성 부재를 읽는다.」 『문화과학』 91, 문화과학사, pp.269-289 등

5) 2016년 8월 1일에 발매된 가노 아라타(加納新太)의 『너의 이름은.(君の名は。) Another Side: Earthbound』(가도카와스니커문고)로 『너의 이름은.』의 외전소설로 알려져 있다. 4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키, 미쓰하의 친구인 데시가와라(勅使河原), 미쓰하의 여동생 요쓰하(四葉), 그리고 미쓰하의 아버지의 시점이 중심이 되고 있다.

6) 양원석·권희주(2017) 「신카이 마코토의 ‘세카이계’ 연구 ‘너의 이름은.’ 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28,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pp.235-258.

에 잠겨버리고 주민의 절반 이상이 죽는 재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재해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등장인물의 심리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소설 『너의 이름은.』을 중심으로 하여 재난과 재해의 양상,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미증유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재해라는 키워드로 볼 때 작품이 갖는 매력이 무엇인지를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현대일본사회에 바라는 모습과 지향점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재해문학으로서의 의의와 가치

일본은 역사적으로 재해와 재난이 끊이지 않았고, 근대 이후에도 서너 차례에 걸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사회와 문화는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경우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고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고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일본사회 전체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이 시점에서 ‘전후(戰後)’가 끝나고 ‘재후(災後)’가 시작되었다고 일컬어지기에 이르렀으며, “‘진재(震災)문학’, 또는 ‘원전(原發)문학’이라는 용어가 2011년도에 들어와 하나의 비평용어로 성립”⁷⁾ 되면서 진재문학의 역사 및 특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너의 이름은.』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대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도시와 시골이 극단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는 고등학생 남녀의 몸이 바뀌는 설정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두 사람의 몸이 바뀌는 현상이 사라진 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느 날 서로의 몸이 바뀌지 않게 되자 다키는 스케치로 남겨둔

7) 정병호(2012) 「3.11 동일본대지진을 둘러싼 2011년 <진재(震災)/원전(原發)문학>의 논의와 전개」 『3.11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문, pp.309-310.

풍경을 단서로 미쓰하가 살고 있는 이토모리마치(糸守町)를 찾아 나선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찾은 그 마을이 3년 전 운석낙하로 인해 없어졌고 미쓰하와 그녀의 가족, 친구를 포함한 주민 500여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가 직접 찾아간 재해지에는 ‘재해대책기본법에 의해 여기부터 출입금지 KEEP OUT 復興庁’이라는 진입금지 바리케이트가 세워져 있었다.

운석 낙하에 의해 신사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부분이 순간 괴멸되었다. 가옥이나 산림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격에 의해 지표가 크게 뒤집어졌다. 직경 거의 1km에 달하는 화구가 형성되었다. 5km 떨어진 지점에서 1초 후에는 매그니튜드 4.8의 흔들림이 있었고, 15초 후에는 광풍이 불어 광범위에 달하는 마을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최종적인 희생자는 500명 이상에 달하는데 그것은 마을 인구의 1/3에 해당된다. 이토모리마치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운석재해의 무대가 된 것이다.

화구는 원래 있었던 이토모리호 가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내부에 물이 흘러들어 결국에는 하나의 표주박 모양의 호수, 신이토모리호가 되었다.

마을 남쪽은 비교적 피해가 적었지만 피해를 모면한 천 명 정도의 주민도 이후 계속에서 마을을 떠났다. 일 년 지나지 않아 자치단체로서의 유지가 곤란해져 운석낙하로부터 14개월 후 이토모리마치는 명실공히 소멸하였다.⁸⁾

(제4장 탐방 pp.124-125.)

작품 곳곳에 재해에 대한 참상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위의 문장을 보면 재해당시의 모습과 그 뒤의 일까지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키가 도서관 자료에서 “하룻밤에 물에 잠긴 마을·이토모리마치”라고 쓰인 것을 보는 장면이나, 그가 오쿠데라(奥寺)선배와 테이트를 한 날, ‘향

8) 「隕石落下により、神社を中心とした広範囲が瞬時に壊滅した。家屋や森林の破壊に留まらず、衝撃により地表ごと大きくえぐられ、長径はぼー1kmにも及ぶクレーターが形成された。さらに5km離れた地点でも一秒後にはマグニチュード4.8の揺れが伝わり、十五秒後には爆風が吹き抜け、町の広範囲が甚大な被害に見舞われた。最終的な犠牲者は五百人以上にのぼり、それは町の人口の1/3にあたる。糸守町は、人類史上最悪の隕石災害の舞台となったのだ。

クレーターはもともとあった糸守湖に隣接して形成されたため、内部に水が流れ込み、最終的には一つのひょうたん型の湖、新糸守湖となった。

町の南側は比較的被害がすくなかったが、被害を免れた千人ほどの住民についても、その後は町からの転出者が相次いだ。一年を待たずして自治体としての維持が困難となり、隕石落下から十四ヶ月後、糸守町は名実ともに消滅した。」

본문 인용은 新海誠(2016)『君の名は。』角川文庫에 의하며 논자가 번역하였다.

수'라는 제목의 사진전에 동일본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산리쿠(三陸)라는 지역의 사진이 있었던 것 등을 보면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본대지진을 떠올리게 충분하다.

신카이 마코토는 재해의 참상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재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과 재해지에서 살아남은 진출자의 모습까지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조수석 창문으로 신이토모리호의 외곽이 내려다보였다. 반쯤 부서진 민가나 끊어진 아스팔트가 물에 잠겨 있었다.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전신주나 첩골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이상한 풍경인데 텔레비전이나 사진으로 봐서 익숙해져서인지 여기는 처음부터 이런 곳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풍경에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지-화를 내야 좋을지 슬퍼해야 좋을지 무서워해야 좋을지 또는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면 될지 잘 모르겠다. 하나의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마 보통 사람의 이해를 넘은 현상인 것이다. 나는 풍경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늘을 보았다. 회색구름이 신이 놓은 거대한 뚜껑처럼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9)

(제4장 탐방 pp.137-138.)

“화를 내야 좋을지 슬퍼해야 좋을지 무서워해야 좋을지 또는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면 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다키의 심리묘사 부분은 애니메이션으로는 알 수 없는 소설이 주는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시선이 아닌 재해와 전혀 관련 없는 곳에 살던 다키의 시선으로 재해지가 묘사되고 있는 점은 작품의 메시지를 고찰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또한 풍경화를 단서로 미쓰하가 사는 곳을 찾아 나선 다키가 포기하려던 순간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라면가게 주인이었다. 그는 재해지에서 살아남아 고향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이다. 인구 1,500명 정도의 일본적이자 쇼와(昭和)적인 작은 마을, 거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의 아는

9) 「助手席の窓からは、新糸守湖の縁が見下ろせた。半壊した民家や途切れたアスファルトが水に浸っている。湖のかなり沖合いにも、電柱や鉄骨が突き出しているのが見える。異常な風景のはずなのに、テレビや写真で見慣れているせいか、ここは最初からこういう場所だったという気がしてくる。だから眼前にあるこの風景になにを思えばいいのか—怒ればいいのか、悲しめばいいのか、怖がればいいのか、あるいは自分の無力を嘆けばいいのか、よく分からなくなってくる。一つの町が失われるというのは、たぶん普通の人間の理解を越えた現象なのだ。俺は風景に意味を探すのをあきらめ、空を見る。灰色の雲が、神さまが置いた巨大な蓋のように頭上にかかっている。」

사람이라는 이토모리마치에 대한 묘사로 볼 때 그는 재해가 아니면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항민이 된 그는 다키가 그린 그리운 고향의 풍경을 보고 다키를 이토모리호나 시립도서관에 데려다 주고, 다키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신체(神體)가 있는 곳으로 향할 때 차가 갈 수 있는 곳까지 동행한다. 헤어질 때 “네가 그린 이토모리, 그거 참 좋았다”라는 그의 말에 다키는 가슴이 메여오는 것을 느낀다.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만나 추위에 떨던 다키는 작은 동굴에서 그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이것이 곧 ‘무스비(ムスビ)’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작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하게 인식한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2013년에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의 순례의 해(色彩を持たない多崎つくと、彼の巡礼の年)』(文藝春秋)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존 작품들과는 달리 행동하고 변화하는 주인공이 조형되어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또한 같은 해 간토(関東)대지진과 전쟁으로 혼란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주인공을 모델로 한 〈바람이 불다(風立ちぬ)〉를 발표하였다. 신카이 마코토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애독하고 미야자키 하야오를 좋아했던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신카이 마코토는 한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진재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기획서에 이미 주기성을 갖는 재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해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주기성이 강한 현상입니다. 2011년 이후 일본인 대부분은 ‘우리는 주기적으로 흔들리는 지면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재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만들자”는 생각은 없었지만 2011년 이후에 발상한 이야기로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주기적으로 무언가를 야기하는 것을 이야기에 넣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¹⁰⁾

동일본대지진 이후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고 “내일은 나일지도 모른다”¹¹⁾고 늘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듯이, 이미 재해는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사람들의 머리 속에 “예기된 재난.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재해”로 자리

10) https://www.huffingtonpost.jp/2016/12/20/makoto-shinkai_n_13739354.html 검색일: 2018.6.12.

11) 新海誠・小島健志(2016) 「特別インタビュー 新海誠 「君の名は。」監督 興行収入100億円突破の快挙 「君の名は。」大ヒットの理由」 『週刊ダイヤモンド』 104(39),ダイヤモンド社, p.14.

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재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작가는 재해의 참상뿐만 아니라 피해자, 실향민 그리고 재해와 관계없었던 사람을 재해지로 끌어들여 진재 및 재해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하게 하는 연결고리, 즉 작품에서 여러 의미의 키워드로 반복되는 새로운 ‘무스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다키와 미쓰하의 연결이 의미하는 것

“미쓰하의 눈으로 보는 도쿄는 낮선 외국처럼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기관(器官)을 갖고 살고 있는데 마치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는 말과 같이 다키가 살고 있는 도쿄와 미쓰하가 사는 이모토리마치는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쪽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수한 유성이 꿈의 경치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다키는 도쿄의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그 유성으로 인해 이토모리마치에 살던 미쓰하는 죽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다키와 미쓰하의 몸이 바뀌는 현상으로 인해 변화된다. 비현실적인 이 설정은 재해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처음 다키와 미쓰하는 단순히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바뀐 재해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장치로서도 작용하는데, 서로의 몸이 뒤바뀌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은 유모와 흥미 유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만 재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의 몸 바꾸기 즉 연결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키의 현재 시점에서 재해가 일어난 것은 3년 전이었는데, 당시 중학생이던 다키는 어느 때와 같이 아버지와 저녁을 먹으면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통해 해성에 관련된 보도를 접하였는데 거기에서는 환상적인 천체 쇼에 대한 기대를 품고 흥분된 어조로 “이 정도로 장대하고 화려한 천체 현상을 목격하는 것, 또한 일본이 마침 저녁시간대인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천 년에 한 번 오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전하고 있다. 다키를 포함한 재해지역과 관련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와 비슷한 마음으로 혜성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키는 “다수과의 일본인=도쿄인”¹²⁾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가가 미쓰하와 바뀌는 인물이 왜 다키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해를 겪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키일 수 있다, 다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몸이 뒤바뀌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한 두 사람은 스마트폰에 일기나 메모를 남기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자라온 환경이나 성격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다양한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인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없어 그 표현과 대응 또한 미숙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각자가 처한 환경과 지인(知人)들까지 포함하여 서로를 총체적으로 이해해간다. 결국 다키는 미쓰하의 도움으로 자신이 좋아하던 오쿠데라 선배와 데이트까지 하게 되지만 “미쓰하가 사는 마을에 빨리 또 가고 싶었다. 미쓰하가 되는 것은 미쓰하와 이야기하는 일이기도 했다”고 생각한다. 몸이 바뀌면서 서로의 체험을 교환하고 서로가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다키는 재해지역에서의 삶을 경험하면서 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결국에는 재해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후 건설업계를 지망하여 취업활동을 하던 그가 면접 중에 “도쿄도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없어서 버린다 해도 아니 없어서 버리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 줄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즉 장소보다는 인간의 삶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마을 만들기의 중요성과 어디든 누구든 재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근대 이후만 보더라도 간토대지진을 비롯하여 한신·아와지대진재를 거치면서 진재를 테마로 한 작품은 계속해서 집필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재해의 비참한 상황을 기록하거나 재해로부터 살아남은 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그러나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지진이나 방사능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조

12) 杉田俊介(2016) 「『君の名は。』論：セカイとワカイの間に」『すばる』38(12), 集英社, p.206.

차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일본사람들의 충격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키와 미쓰하의 몸 바꾸기라는 설정을 통해 기존 진재문학의 경향과는 달리 재해가 일어났던 과거로 돌아가 죽었던 사람들을 구출한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인재만큼은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 한 가지 몸이 바뀌는 체험을 통해 다키와 미쓰하는 변화되고 성장하였다. 다키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앞서고 자신이 좋아하는 선배에게 고백도 못하는 약한 청년이었다. 교우관계나 생활 등은 평범하였지만 “무언가를 향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¹³⁾는 캐릭터로 조형되어 있던 것이다. 그가 혼자 이모토리마치로 향했을 때 친구인 쓰카사(司)나 오쿠데라 선배가 동행한다. 이 둘을 포함하여 다키가 “라면가게 아저씨가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약한 자신을 걱정해서 그냥 둘 수 없어서 따라왔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다키는 “언제까지나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누군가 내미는 손에 의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재해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¹⁴⁾, “세상이 이렇게까지 참혹한 곳이라면 나는 이 외로움만을 안고 그리고 전심전령(全心全靈)을 다해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이 감정만으로 발버둥 칠거야. 헤어져 더 이상 만날 수 없어도 나는 발버둥 칠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다.

미쓰하 또한 아무런 변화 없는 좁은 시골마을에서 전통과 인습에 얽매어 살아가는 삶에 염증을 느끼던 소녀였다.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키로부터 힘을 얻고 재해로부터 자신은 물론 마을사람들을 구하려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이제 아무도 무섭지 않아. 이제 나는 외롭지 않아.

이제 겨우 알았으니까.

나는 사랑을 하고 있어.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어.

13) 志水義夫・助川幸逸郎編(2017) 『『君の名は。』の交響』ひつじ書房, p.27.

14) 「あいつに……あいつに逢うために来た! 助けるために来た! 生きていて欲しかった!

消えていく。あんなにも大切だったものが、消えていく。(中略)

「大事な人、忘れちゃだめな人、忘れなくなかった人!」(第6章 再演 p.206.)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그래서 사는 거야.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가령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령 별이 떨어져도 나는 살 거야.¹⁵⁾

(제6장 재연 pp.228-229.)

두 사람의 몸이 바뀌는 것에 주목하여 이것이 “서로에게 내적 변화”를 일으켰고 “역사의 변화”¹⁶⁾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는 미쓰하의 경우 제도나 전통에 얽매어 무너로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켰다는 관점이고 다키의 경우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이다.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변화에 대한 지적이 매우 국소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애니메이션의 프로듀서였던 가와무라 겐키(川村元氣)가 “사람에게 가장 잔혹한 일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가는 일”이며 잊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맞서려고 발버둥치는 것으로 생을 획득하는 것”¹⁷⁾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듯이, 재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다키와 미쓰하는 서로의 몸이 뒤바뀌는 체험을 통해 소중한 것을 인식하고 힘든 역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생을 영위해나가려는 인물로 변화된 것이다.

4. 젊은 세대를 위한 메시지

소설의 도입부에는 마을 전체에 방송되는 방재무선방송에서 이토모리마치의 정장(町長)선거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NHK에서 1,200년에 한 번 오는 해

15) 「もうなにも怖くない。もう誰も恐れない。もう私は寂しくない。

やっとわかったから。

私は恋をしている。私たちは恋をしている。

だから私たちは、ぜったいにまた出逢う。

だから生きる。

私は生き抜く。

たとえなにか起きて、たとえ星が落ちたって、私は生きる。」

16) 전윤경(2017) 「질 들뢰즈의 ‘되기’의 사유로 본 〈너의 이름은〉 - ‘몸 바꾸기’의 의미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11,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p.36.

17) 新海誠(2016) 『君の名は。』解説 角川文庫, p.261.

성의 소식을 알리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 얼핏 보면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소식에 얽힌 에피소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대조적으로 그려내는 통로가 된다.

먼저 미쓰하는 10년지기 친구인 텃시(テッシー), 사야친(サヤちん)과 함께 등교를 하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정장선거 유세를 보게 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엇보다도 마을(集落)재생사업의 지속과 그를 위한 마을 재정의 건전화! 이것이 실현되어야 비로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직으로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마을 만들기를 완성하고 싶다, 더욱더 발전시키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정열로 이 지역을 이끌고 아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활기차게 활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해나가고 싶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결의를 다지는 바입니다.... 18)

(제2장 단서 p.23.)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자켓을 입고 팔에는 ‘미야미즈 도시키 응원단’이라 쓰인 완장을 찬 텃시의 아버지가 웃으면서 서 있다. 이 장면에서 미쓰하와 텃시에게 “이 애들도 유착하고 있군. 그거 부모님이 시킨 건가?”라고 비웃는 학생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장면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담겨져 있다. 미쓰하와 텃시의 아버지로 대변되는 기성세대 또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재해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구한 것은 미쓰하과 텃시를 비롯한 다키, 사야친 등 17살의 고등학생이었다.

다키가 미쓰하의 반인 ‘구치카미자케(口囁み酒)’를 마시자 재해 당일로 서로의 몸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 남자와 몸이 바뀌는 이상한 체험을 했던 할머니조차 위험을 경고하는 말을 믿지 않자 미쓰하로 바뀐 다키는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아무도 죽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텃시, 사야친과 구조계획을 세운다.

18) 「なによりも、集落再生事業の継続、そのための町の財政健全化! それが実現して初めて、安全、安心な町作りができるのです。現職として、ここまで進めさせていただいてきた町作りを完遂させたい、さらなる磨きをかけたい! そして新たな情熱でこの地を導き、子どもからお年寄りまで、誰もが安心して生き活きと活躍できる地域社会を実現していきたい! それが私の使命やと、決意を新たにとします……」

뎃시는 아버지 회사 창고에 있는 토목용 폭약을 이용하여 변전소의 송전탑을 폭파시켜 마을을 정전되게 하고, 어두운 밤 방송실에서 홀로 견디며 울먹이던 사야친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안정된 어조로 중복주파수를 이용하여 방재무선으로 피난지시를 한다. 사야친은 계속해서 의심을 했지만 뎃시는 이토모리호가 일본에서는 드물게 1,200년 전에 운석으로 인해 생긴 호수라는 점에서 재해발생 가능성을 굳게 믿는다. 그는 모두가 믿지 않는 가운데 가장 든든하게 미쓰하를 도왔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피난시키는 것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미쓰하는 필사적으로 달려가 정장인 아버지를 설득한다. 그러나 그는 딸에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말하며 화를 낼 뿐이다.

뎃시와 사야친의 협력도 훌륭하지만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다키와 미쓰하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카이 마코토가 지금까지 고독 속에서 각자 싸우는 주인공을 그린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둘이 떨어져 있지만 같이 싸우게 된”¹⁹⁾다는 지적과도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미쓰하의 몸으로 바뀐 다키였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은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 미쓰하였다.

황혼 무렵 다키와 만난 미쓰하는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와 다키가 세워놓은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뎃시와 미쓰하가 송전탑 폭발에 성공하자 방송실에 몰래 들어가 불안해하던 사야친은 안정된 어조로 천천히 피난을 권고한다. 동시에 미쓰하와 뎃시는 한창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가서 “도망가! 산에서 불이 나, 여기는 위험해!”라고 외치면서 뛰어다닌다.

소설과 애니메이션에는 그려지지 않지만 결국에는 미쓰하가 아버지를 설득하여 주민 모두를 구출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젊은이들에 대해 “운명, 유대/끈 등의 과거 지향성”이 보이며 “사회성이 부재”하고 “시행착오를 통한 관계구축”²⁰⁾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 때 특히 10대, 20대 청년층을 공략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²¹⁾에 고민한 것처럼 다키와 미쓰하가 서로의 공동체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며 융화되고 같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위의 지적은 설득력이

19) 長山靖生(2016) 「SFのある文学誌(第49回)『君の名は。』の時場 新海ファンタジイの文脈」 『SFマガジン』 57(6), 早川書房, p.124.

20) 후쿠시마 미노리(2017) 「〈너의 이름은〉에서 일본 청년세대의 사회성 부재를 읽는다.」 『문화과학』 91, 문화과학사, p.270. p.279.

21) 전계주 新海誠・小島健志(2016) p.14.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재해로부터 8년이 지난 어느날 가두 비전에는 재해로부터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우연과 행운에 대해 “이토모리마치의 용신(龍神)전설과 혜성 내방(來訪)을 관련지은 민속학적인 것부터 피난을 강행했다는 이토모리 정장의 강권발동을 칭찬하거나 의문시하거나 하는 정치적 언설, 나아가 운석낙하는 실은 예언된 것이었다고 하는 오컬트적인 것까지 잡다한 무책임한 말이 연일 생겼다”고 기술되어 있다. 마을은 재해로 인해 없어졌지만 사람들이 모두 살아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젊은이들의 활약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의문이다. 앞서 혜성에 대한 환상에 들뜬 텔레비전 보도 장면을 참고해볼 때, 정치나 오컬트적인 것으로 이슈화를 하려는 미디어의 성향 및 사회에 대한 비판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여하튼 젊은 세대와 관련된 용어를 보면 한국에서는 3포, 5포를 넘어 7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하였고, 일본에서는 모라토리움(moratorium) 인간, 니트족(NEET族), 프리터(フリーター),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등,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의 말들이 그들을 수식어처럼 따라다닌다. 위의 용어에서 엿볼 수 있듯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을 잃고 홀로 고립을 선택한 채 버블붕괴를 비롯하여 각종 재난과 재해가 끊이지 않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신카이 마코토는 의도적으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작품을 만든 것이고, 이 작품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는 다키와 미쓰하, 그리고 텃시와 사야친 등의 젊은이를 그려내고 있다. 재해로 고향은 잃었지만 그들이 도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는 열린 결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기

이상 재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설 『너의 이름은.』을 고찰해보았다.

먼저 재해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에는 재해의 참상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실향민, 재해와 관련이 없는 자를 모두 재해지로 끌어들

여 진재 및 재해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다키와 미쓰하의 몸이 바뀌는 설정은 재해와 관련이 없던 다키를 재해 지역으로 이동하게 했고, 재해를 겪지 않은 모든 이들을 상징하는 그는 피해자인 미쓰하와 힘을 합쳐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한다. 동일본대지진은 천재지변이었지만, 동시에 발생한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인재였다고 할 수 있다.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지만 인재만큼은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된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작가의 강한 의지 또는 아쉬움이 주민들을 모두 구해내는 것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키와 미쓰하는 삶 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된다.

작품 속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기성세대의 포부가 어필되고 있지만 결국 재해로부터 사람들을 구한 것은 다키, 미쓰하, 텃시, 사야친 등 17세의 고등학생으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였다. 비록 재해로 인해 고향은 잃었지만 그들은 강하게 살아남아 도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행보 속에는 꿈과 희망을 잃고 고립되어 가는 재후(災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삶에 변화를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양원석·권희주(2017) 「신카이 마코토의 ‘세카이게’ 연구 『너의 이름은』 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28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pp.235-258.
- 전윤경(2017) 「질 들뢰즈의 ‘되기’의 사유로 본 〈너의 이름은〉 - ‘몸 바꾸기’의 의미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11,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p.36.
- 정병호(2012) 「3.11 동일본대지진을 둘러싼 2011년 〈진재(震災)/원전(原発)문학〉의 논의와 전개」 『3.11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문, pp.309-310.
- 후쿠시마 미노리(2017) 「〈너의 이름은〉에서 일본 청년세대의 사회성 부재를 읽는다」 『문화과학』 91, 문화과학사, p.270. p.279.
- 志水義夫·助川幸逸郎編(2017) 『『君の名は。』の交響』 ひつじ書房, p.27.
- 新海誠(2016) 『君の名は。』解説 角川文庫, p.261.
- 新海誠・小島健志(2016) 「特別インタビュー 新海誠 「君の名は。」監督 興行収入100億円突破の快挙 「君

- 「の名は。」大ヒットの理由 『週刊ダイヤモンド』 104(39), ダイヤモンド社, p.14, p.27.
杉田俊介(2016) 「『君の名は。』論：セカイとワカイの間に」 『すばる』 38(12), 集英社, p.206.
長山靖生(2016) 「SFのある文学誌(第49回)『君の名は。』の時場 新海ファンタジイの文脈」 『SFマガジン』
57(6), 早川書房, p.124.
<https://www.bookbang.jp/article/519129> (검색일: 2018.6.12.)
https://www.huffingtonpost.jp/2016/12/20/makoto-shinkai_n_13739354.html (검색일: 2018.6.12.)
<https://eiga.com/movie/83796/> (검색일: 2016.7.31.).

논문 투고 일자 : 2018. 10. 11.
논문 심사 일자 : 2018. 11. 07.
게재 확정 일자 : 2018. 11. 09.

 <要旨>

新海誠の『君の名は。』における災害

尹惠映

本研究は、災害というキーワードで小説『君の名は。』を考察してみたものである。

まず、この作品は災害文学と言えるが、災害の惨状を伝えるだけではなく被災者、失郷民、そして災害に関係のない人々を災害現地に引き寄せて、災害について共に考える場を作っている点に特徴がある。特に、滝と三葉の「入れ替わり」という設定は災害と関連のない滝を災害現地に移動させる装置となり、彼は被災者である三葉と力を合わせて糸森の人々を救う。ここには人災という批判を受けた福島原発事故への反省とそれを残念に思う作者の気持が表れている。また難関を克服しながら協力する過程を通じ、受け身で不満だらけであった滝と三葉は生に対する強い意志を持つようになる。結局のところ災害から人を救ったのは17才の高校生、即ち若い世代であった。作家は震災後の夢と希望を失ってしまった孤立の時代を生きる若い世代に対し、滝、三葉、テッシー、サヤちんを通して生へのメッセージを伝えていると言えよう。

A Study on Disaster in *Your Name*. (*Kimi no Na wa.*) by Makoto Shinkai

Yun, Hye-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novel *Your Name*. as a key to studying the topic of disaster.

First of all, this work is about disaster literacy. Nevertheless, it does not avoid depicting the horrors of disasters.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all the victims, displaced people, and people not related to the disaster are gathered together at the scene of the disaster. They develop a connection that causes them to contemplate disasters. In particular, the switching of Taki and Mitsuha's bodies causes Taki, who is unrelated to the disaster, to visit the disaster area. There, he reconnects with the victim, Mitsuha, and through her he manages to save the lives of many people by convincing them to evacuate the area. This can be considered to imply a reflection on and regret about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which has been criticized as a disaster caused by human error.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difficulties of the disaster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Taki and Mitsuha, despite the latter's passivity and numerous complaints, develop a strong will to live. After all, it was a young generation represented by a 17-year-old high school student who saved people from the disaster. In this work the writer, through the characters of Taki, Mitsuha, Desshi, and Sayachin, casts a lifeline to younger generations who give up on their dreams and hopes, and become isolated.